



3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

제104회기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이역희
서 기 성경선

1. 조직

- 위 원 장 : 이역희
- 회 계 : 홍재덕
- 부 위 원 장 : 유웅상
- 연구분과장 : 오명현
- 위 원 : 김재관 서한국 최윤영 최금성
- 전 문 위 원 : 김지호 교수
- 서 기 : 성경선
- 총 무 : 진용식
- 부 회 계 : 이창원
- 조사분과장 : 이경조

2. 회의

1)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9. 11. 19(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임원 조직

위원장 / 이역희 목사, 부위원장 / 유웅상 목사, 서기 / 성경선 목사, 회계 / 홍재덕 목사, 부회계 / 이창원 장로, 총무 / 진용식 목사, 연구분과장 / 오명현 목사, 조사분과장 / 이경조 목사

② 전임강사와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두기로 하다.

③ 정기모임을 갖기로 하다.

④ 다음 모임은 12월 17일(화)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2) 제2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9. 12. 17(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② 연구위원 / 오명현 목사, 최금성 목사, 서한국 목사, (유웅상 목사)
조사위원 / 이경조 목사, 최윤영 목사, 김재관 목사, (이역희 목사)
전문위원 / 김지호 교수(칼빈대)

③ 제104회 총회 수입사항의 건(104회기 현의안 참조)을 점검하다.

④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교단) 총회장 김정환 목사의 이승현 목사의 구속사 세미나 참여 금지

및 교재사용 금지 결의 건에 대하여는 조사분과에 일임키로 하다.

- ⑤ 신학부의 목회자 진리수호 편집인 김문제, 발행인 박형택 씨의 이단옹호 이첩의 건과 세계한인 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장의 항의서 및 질의서의 건과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교단의 정동수 목사 이단성 해지 연기결정 입장문의 건과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이단 철회 및 요청 사항의 건은 연구분과로 일임키로 하다.
- ⑥ 기독교대한감리회이단대책위원회의 예정합동에서 감리회 이인규 권사 이단 규정에 대한 질의의 건과 서울강서노회 유석근 목사(알이랑 교회)교회 명칭 변경과 노회 지도에 대한 보고의 건은 조사분과로 일임키로 하다.
- ⑦ 헌의안 (다)김포 큰 은혜기도원교회 방춘희 원장 관련 건과 (마)한기총 전광훈 목사 관련 건은 조사분과에 일임키로 하다.
- ⑧ 헌의안 (라)박바울 목사 관련 건과 (바)교단마크 도용 관련 건은 연구분과에 일임키로 하다.
- ⑨ 모든 출석 요청은 총회 공문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 ⑩ 자체세미나 건은 2020년 1월 20 ~ 21일 대전에서 진행키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임원회에 맡겨 추진키로 하다.

(3) 제3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0. 1. 17(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회원 점명 하니 6명이 참석하여 성수가 되니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 ③ 전회의록 낭독을 유인물로 받기로 하다.
- ④ 이대위 자체 세미나를 일시: 2020년 1월 20일 ~ 21일, 12:00 장소: 계룡스파텔에서 하기로 하다.

(4) 제4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0. 1. 20(월) 20:00

☞ 장 소 : 계룡스파텔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104회기 이대위 일정 방향의 건 3개권역별 세미나를 개최키로 하다.(3회~4회정도), 동남아시아권 (103회기)이대위세미나에 대하여 서기가 확인키로 하며 미주세이연 건은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③ 104회기 이단백서 원고분담 및 이단대책관련 문건 발간의 건은 이단백서의 방향성을 위원장에게 일임키로 하다.(15개 항목 정도)
- ④ 한기총 이단성 옹호단체 규정 헌의안의 건은 이단성 옹호에 대하여 지적하고, 엄중히 경고하기로 하다.
- ⑤ 이대위의 연속성에 대해 부위원장 유웅상 목사의 의견을 청취하다.

(5) 제5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0. 2. 20(목) 오전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서기가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인터콥 선교회 재심 청원의 건”은 차기회의로 연기기로 하다.
- ③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단대책위원회의 “예장합동에서 감리교 이인규 권사의 이단 규정에 대한 질의의 건”은 하반기에 다루기로 하다.
- ④ “이대위자체세미나 결산 보고의 건”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⑤ “연구 및 조사 분과 진행 점검의 건”은 소위원회회를 모이기로 하다.
- ⑥ “이단백서 원고 분담 및 발간의 건”은 목회자 대상 이단 백서 및 성도대상 요약집을 분리해서 발간기로 하고 백서 및 요약집을 발간기로 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기로 하다. 조직: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조사 분과장, 연구 분과장으로 하기로 하다.
- ⑦ 이대위 권역별 세미나는 연기기로 결의하다.
- ⑧ “8개 교단 이대위원장 회의 점검의 건”은 유인물을 참고기로 하다.
- ⑨ 2020. 4. 23일(목) 8개 교단 이대위 전체모임을 가지기로 하다.

(6) 제6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0. 5. 11(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연구 및 조사분과 진행 중간 점검하다.
- ③ 이단 규정 관련 단체에 참여치 못하도록 이대위에서 참여 금지 교류 단절(인터콥) 기독교신문에 광고하고 공문을 각 노회에 발송기로 하다.(총회 결의 인용)
- ④ 순회 선교단(김용의 선교사) 및 빛의 자녀교회(김형민 목사)의 건은 연구분과위로 일임기로 하다.
- ⑤ 세이연과 감리교 이인규 권사의 이단규정에 대한 질의의 건은 조사분과위에서 답변서 초안을 작성기로 하다.
- ⑥ 신천지 이탈자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의 건은 오명현, 진용식 목사에게 일임기로 하다.

(7) 제7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0. 7. 1(수) 13: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3번, 5번)을 재점검하고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별첨 5번(세이연)과 8번(감리교 이인규 권사의 이단규정에 대한 질의의 건)이 어떤 건인지 명시하여 작성기로 하다.)
- ②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인터콥에 대한 이단성 조사 및 정의(결의)사항 요청의 건은 논의 후 판단기로 하다.
- ③ (재) 피지 한국 기독교 협의회 박옥수 구원파 이단 확인 요청의 건은 논의 후 판단기로 하다.
- ④ 기독교신문사 (구) 산위의 교회 이단성 연구 요청의 건은 서류 접수에 대하여 절차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를 하기로 하다.
- ⑤ 동수원노회 송명덕 목사 이단 사상 조사의 건도 서류 접수에 대하여 절차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

토를 하기로 하다.

- ⑥ 이단(신천지) 탈퇴자 회복을 위한 미래 목회 세미나 순서배정은 위원장과 서기에게 일임키로 하다.
- ⑦ 연구분과 및 조사분과 현의안 배정 안건 점검의 건은 차기 회기에 다루기로 하다.
- ⑧ 총회(임원회)의 수입 및 정당한 절차없이 이대위에 넘어오는 서류는 받지 않기로 하다.

(8) 제8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0. 7. 20(월) 11:00

☞ 장 소 : 계룡스파텔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이단(신천지) 탈퇴자 회복을 위한 미래 목회 세미나 등록 현황을 보고받다.
- ③ 서울동노회 산위의 교회 관련 서류일체 송부의 건(사실확인)을 보고받다.
- ④ 연구 분과 및 조사분과 현의안 상정 안건 총회보고는 다음 회의시 논의키로 하다.
- ⑤ 다음 회의는 7월 28일(화) 오전 11시 - 임원 및 분과장 회의, 오후 1시 - 전체회의 소집키로 하다.

(9) 제9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0. 7. 28(화)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이단(신천지) 탈퇴자 회복을 위한 미래 목회 세미나 결산 보고를 받다.
- ③ 김형민 목사의 건은 약속이행절차를 지켰는지 사실확인 후 처리키로 하고 연구분과장 오명현 목사의 보고를 받고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④ 유석근 목사의 보고를 받고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⑤ 정동수 목사의 보고를 받고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⑥ 김용의 선교사의 보고를 받고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⑦ 전광훈 목사 및 한기총의 이단옹호기관 지정의 건은 보고를 받고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⑧ 방춘희 원장의 건은 보고를 받고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⑨ 연구분과 및 조사분과의 보고는 내용을 정리하여 받기로 하다. 내용정리 및 자구수정은 정임원에게 맡기기로 하다.

(9) 제10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0. 8. 7(금) 15:00

☞ 장 소 : 통영밀알교회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위원장과 서기에게 보고서 작성을 맡기기로 하다.



2) 임원회의

(1) 1차 임원회

☞ 일 시 : 2020. 4. 7(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호헌측 박바울 목사 이단 조사에 관한 건은 조사분과에 맡기기로 하다.
- ② 인터콥 재심 청원의 건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다루기로 하다.
- ③ 서울동노회 산위의 교회 지도교리의 조사 내용 및 오류 여부 질의 요청의 건은 조사분과에 맡겨 내용을 정리하기로 하다.
- ④ 성락교회 내용 증명 서류 이첩 건은 본인들에게 답변서를 요청하기로 하다.
- ⑤ 한교총 이단 현황 파악 협조 요청의 건은 보류하기로 하다.
- ⑥ 104회기 이단백서 원고 분담 및 발간의 건은 본부 직원과 임원들이 의논하여 연구하기로 하다.
- ⑦ 위원장과 서기는 분과위에 참석치 않기로 하다.
- ⑧ 다음모임은 추후 의논하기로 하다.
- ⑨ 조사분과에 지도위원(교수, 2인)을 위촉하기로 하다.

(2) 2차 임원회

☞ 일 시 : 2020. 7. 28(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보고사항 이단(신천지) 탈퇴자 회복을 위한 미래 목회 세미나 결산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③ 인터콥 선교회 재심청원의 건은 최종 결론을 정임원회의에서 정리하기로 하다.
- ④ 이단백서 발간 및 연구비로 심창섭 교수 50만원(2편), 김지호교수, 이역희 목사, 오명현 목사 30만원씩 원고료를 지급하기로 하다.
- ⑤ 8월 7-8일 이대위 자체세미나를 통영 밀알교회에서 가지기로 하다.

(3) 3차 임원회

☞ 일 시 : 2020. 7.31(금)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최종보고서 내용을 서기에게 맡겨 정리하여 정임원회에서 마무리하기로 하다.
- ③ 각 분과장들의 보고서를 총회보고용으로 A4용지 1/2로 보고받기로 하다.
- ④ 8월 6일(목) 오전 11시 대구 에텐은목원에서 갖기로 하다.

(4) 4차 임원회

☞ 일 시 : 2020. 8. 6(목) 11:00

☞ 장 소 : 에텐은목원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인터콥 재심의 건은 이전의 결의대로 유지기로 하고 본인들이(인터콥) 총신과 GMS의 훈련과정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공문 요청이 있기에 총회에 청원기로 하고 결과 여부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③ 총회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서기에게 일임기로 하다.
- ④ 개인의 감정으로 올린 헌의안이나 정치적 상황이 개입된 정황이 보이는 헌의안은 배제기로 하다.
- ⑤ 동일노회에서 상습적으로 올리는 헌의안에 대해서 연구, 조사 배제기로 하다.
- ⑥ 한기총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 8개 교단 결의를 우선하여 결의하기로 하다.
- ⑦ 진주노회 질의 답변의 건은 전태식 목사는 2005년 제90총회 총회에서 '참여금지'로 결의한 바 있으나 이경은 목사에 대하여는 본 이대위의 연구결과 없이 귀 노회에서 질의한 바대로 구속력을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로 답변서 보내기로 하다.

(5) 5차 임원회

- ☞ 일 시 : 2020. 8. 10(월) 11:3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104회 보고서는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3) 분과위원회의

(1) 제1차 조사위원분과회의

- ☞ 일 시 : 2020. 5. 15(금)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서울동노회 형편을 고려하여 이대위 상황을 경청하다

(2) 제2차 조사위원분과회의

- ☞ 일 시 : 2020. 6. 16(화)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방춘원 원장(김포 큰 은혜 기도원 교회) - 이경조 목사가 담당기로 하다.
 - ③ 전광훈 목사(한기총) - 최윤영 목사가 담당기로 하다.
 - ④ 산위의 교회(서울동노회) - 이경조 목사가 정리하여 이대위 입장을 서울 동노회 재판국에 전달기로 하다. ①, ②번은 조사 정리하여 전체회의에 상정기로 하다.

(3) 제1차 연구위원분과회의

- ☞ 일 시 : 2020. 5. 18(월) 11:00
- ☞ 장 소 : 전복신학교
- ☞ 결의사항
 - ① 빛의 자녀교회(김형민 목사)의 건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교단이 진행 하고 있는 검토와 검증의 자료를 요청기로 하다



- ② 순회선교단(김용의 선교사)의 건은 자료를 수집하고 총신교수 문병호, 심창섭, 김지호 교수 순으로 연구 의뢰하기로 하다.
- ③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의 건은 103회, 104회 총회 결의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 ④ 박바울 목사의 건은 남중노회에 원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다.
- ⑤ 연구 분과 조직으로 연구 분과 서기로 최금성 목사를하기로 하다.
- ⑥ 다음 모임으로 6월 3일(수) 오전 11시에 전북신학교에서 모이기로 하다.

(4) 제2차 연구위원분과회의

☞ 일 시 : 2020. 6. 3(수) 10:00

☞ 장 소 : 전북 CBS 이단상담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총회 임원회 건축재정 운영 협조의 건은 총회 지시대로 하기로 하되 이대위 사업은 계획대로 하기로 하다.
- ③ 빛의 자녀교회(김형민 목사)의 건은 다음 회의 때까지 설교 동영상 및 녹음파일을 확인하고 보고하기로 하다.
- ④ 순회선교단(김용의 선교사)건은 심창섭 교수 보고서를 보고 논의하기로 하다.
- ⑤ 박바울 목사의 건은 연구분과장 오명현 목사에게 맡기기로 하다.
- ⑥ 이단백서 추진의 건은 이단 피해 사례를 삭제하고 추진기로 하다.
- ⑦ 이단탈퇴자 회복 세미나는 위원장·서기·연구분과장·조사분과장에게 맡겨 7월 20일(월)-21일(화) 준비하기로 하다.

(5) 제3차 연구위원분과회의

☞ 일 시 : 2020. 7. 15(수) 10:00

☞ 장 소 : 전북신학교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빛의 자녀교회(김형민 목사)의 건은 연구분과장 오명현 목사의 보고를 받고 김형민 목사의 집회 및 강의에 참여 금지를 하기로 결의할 것을 전체 회의에 보고하기로 하다 (그의 설교와 강의가 교파를 초월해서 전체 기독교인들에게 비성경적이며, 반정통신학적인 사상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단호하게 경계한다. 김형민 목사의 집회 및 강의에 참여 금지하기로 하다).
- ③ 순회선교단(김용의 선교사) 건은 삼위일체의 불분명과 유사구조의 위험성이 있으며, 선교적 중말론이 극단적인 경향이 보이므로 주의하기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다.
- ④ 사랑침례교회(정동수 목사) 건은 102회, 103회, 104회에서 결의한 바대로 시행하지 않는 한 총회에서 재론하지 않기로 하다가 전체회의에 상정하다.
- ⑤ 박바울 목사의 건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다.
- ⑥ 김문제, 박형택 씨의 건은 추가적인 자료 확인 후에 다루기로 하다.

3. 주요사업

1) 이대위자체세미나

(1) 일 시 : 2020. 1. 20(월) ~ 21(화) 11:00

(2) 장 소 : 계룡스파텔

(3) 참석인원 : 16명

(4) 내 용

① 개회예배 : 총회장 김종준 목사

② 세미나 : 이단의 정체와 교회의 폐해에 대한 대책(칼빈대 국제목회대학원장 김지호 교수)

③ 공청회 : 산위의 교회(서울동 노회)의 이단성조사 제안(기독신문 송상원 기자)

(5) 결산

| 수 입 | | 지 출 | |
|------------|------------------|------------|------------------|
| 항목 | 금액(원) | 항목 | 금액(원) |
| 총회예산 | 5,369,510 | 순서 및 강사비 | 2,210,000 |
| | | 숙박비 | 800,800 |
| | | 연회장 및 식비 | 915,710 |
| | | 인쇄비 | 410,000 |
| | | 행사진행비 | 1,033,000 |
| 합 계 | 5,369,510 | 합 계 | 5,369,510 |

2) 이단 탈퇴자(신천지) 회복을 위한 미래목회세미나

(1) 일 시 : 2020. 7. 20(월) ~ 21(화) 9:00

(2) 장 소 : 계룡스파텔

(3) 참석인원 : 50명

(4) 내 용

① 개회예배 : 총회장 김종준 목사

② 이대위 세미나 개최 취지 설명 및 이대위원 소개 : 위원장 이억희 목사

③ 세미나

가. 코로나 19 이후 신천지의 변화와 우리의 대처 : 구리이단상담소장 신현욱 목사

나. 신천지 요한계시록의 허구 : 이대위 연구분과장 오명현 목사

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드러난 신천지 종교사기 : 이대위 총무 진용식 목사

라. 이단에 대한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교회의 미래 대응 전략 : 칼빈대국제목회대학원장 김지호 교수

마. 이단 유혹에 대한 목회자의 미래 목회 대응 전략 : 안양석수교회 김찬곤 목사



(5) 결산

| 수 입 | | 지 출 | |
|------------|-------------------|------------|-------------------|
| 항목 | 금액(원) | 항목 | 금액(원) |
| 등록비 | 1,750,000 | 강사순서비 | 2,825,000 |
| 총회예산 | 9,885,240 | 광고비 | 1,800,000 |
| | | 인쇄비 | 1,439,000 |
| | | 숙박비 | 1,601,600 |
| | | 연회장 및 식비 | 1,931,000 |
| | | 행사진행비 | 2,038,640 |
| 합 계 | 11,635,240 | 합 계 | 11,635,240 |

104회 총회 수임사항 연구 최종 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이단·사이비규정 지침 제 3장 이단규정 및 시행세칙 제 7조(이단규정 기준) 1. 성경의 가르침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 개인의 판단이나 신학적 견해가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본 위원회 연구조사 보고는 105회 총회 결의로 확정한다.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에서는 104회기 총회로부터 수임 받은 현의안과 재심의 건과 제반 안건에 대하여 연구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1. 본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현의안과 재심의 건 등 안건들을 연구분과위원회와 조사분과위원회에 맡겨 연구조사 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심도 깊게 연구조사 하였다.
2. 본 위원회는 그 결과에 대한 의견과 요청을 존중하여 원문을 그대로 받기로 하였고, 내용을 요약하여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3. 본 교단과 교류하고 있는 8개 교단과의 협의에 따라 교단 간 서로 다른 교리를 이단문제로 다를 경우 대 사회적 연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해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하였다.
4.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올린 현의안, 정치적 상황이 개입된 정황이 보이는 현의안, 동일노회에서 상습적으로 올리는 현의안에 대하여 연구조사를 배제하기로 하였다.
5. 104회기 주요 사업으로 이단(신천지) 탈퇴자를 위한 회복 세미나를 진행하여 교회의 대응전략을 나누었고 이단백서를 발간하여 과거의 이단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1. 김형민 목사(빛의 자녀교회)

(104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로 돌려보내어 교단의 진행 중인 검토와 검증의 시간을 주기로 하였으며, 다음 회기에 재론기로 하다.

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제104회기 총회에서 수임 받은 김형민 목사에 대한 이단성 연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김형민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103회기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철저히 신학적 근거를 뒷받침할만한 단어 선택으로 설교를 준비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김형민 목사의 신학적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한국침례회의 협조공문을 수용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고 본 건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로 돌려보내어 교단의 진행 중인 검토와 검증의 시간을 주기로 하였으며, 다음 회기에 재론하기로 하다고 했습니다.
2. 제104회기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먼저 2020년 5월 22일에 김형민 목사(빛의 자녀교회)의 건에 대하여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검토와 검증 자료를 요청하였고, 2020년 5월 29일에 이에 대하여, “본 교단 총회(대한기독교침례회)에서 김형민 관련 건에 대한 결정이 되어지면 귀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 통보할 것”이라는 회신이 왔지만, 침례회 총회는 2020년 7월 7일까지 아무 답이 없기에 본 이대위에서 절차를 밟아 재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3. 본 이대위는 2019년 김형민 목사를 불러 질의응답을 한 이후로 김형민 목사의 설교가 약속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를 검증하기로 하고, 김형민 목사의 설교들을 듣고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김형민 목사는 신비주의적인 개인 체험을 설교 및 간증함으로써 마치 개인의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객관화하였습니다. “꿈에서 칼을 보았는데 칼기가 떨어졌



다”는 이런 주장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여겨집니다. 둘째로 김형민 목사는 하나님과 예수께 기도하면 개인에게 천사를 보내주고 천사가 오면 모든 것이 행통하게 된다고 주장함으로 이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천사동원령과 같은 사이비적인 사상이 심어질 위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여겨집니다. 셋째로 김형민 목사는 말씀을 알아도 계시가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 이 설교를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고 또 다른 계시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결론 : 김형민 목사는 개인의 신비주의적인 경험을 설교의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신비체험신앙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형민 목사가 침례회목사이지만, 그는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의 설교와 강의를 교파를 초월해서 전제 기독교인들에게 비성경적인 사상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음으로 본 교단 산하 교회는 그의 집회에 참여를 금지하고 교류를 금지하기로 하다.

2. 유석근 목사(알이랑교회)

(104회) 본인이 잘못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며 앞으로 ‘또 하나의 선민 알이랑 민족’과 관련하여 강의를 일절 하지 않을 것과 목회에만 전념하기로 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경고하기로 보고하니, 교회명칭과 문제되는 부분들까지 변경하도록 해 노회에 지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토록 자구 수정하여 반기로 가결하다.

결론 : 강서노회 산하 유석근 목사 교회 명칭 변경과 노회 지도사항을 보고 받다.

3. 최바울 선교사(인터콥 선교회)

(104회) 제98회기 이단사이비 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동대전노회장이 청원한 인터콥의 이단성이 있는지에 대한 건은 인터콥 자료를 GMS에 요청하기로 하다.」 제102회기 이단사이비 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전남노회장 윤인용씨가 현의한 「인터콥에 대한 제98회 총회결의 시행의 건은 제98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제98회 총회보고서의 신학부 최종보고(연구결론)에 의하면 「최바울선교사는 여전히 극단적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견지하고 있다. 최바울선교사는 프리메이슨의 음모론을 근거로 인류문명을 타락한 문명으로 단정 짓는 극단적인 논지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젊은이들과 평신도들에게 현실도피의 신앙을 갖도록 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 그러므로 본 교단은 최바울선교사와 그가 이끄는 선교단체(인터콥)와는 이후로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산하 지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참여한 개인이나 교회는 탈피하여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18. 5.24. ‘GMS총회세계선교회의 인터콥에 대한 입장 표명의 건’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선교필드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터콥의 부정적 영향에 관하여 본 단체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문제 제기가 한국선교의 현장을 건강하게 하고, 선교역량의 악화를 방지하며, 변화하는 선교현장의 유효적절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다시 한 번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선교현장에서 더 이상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결단이 있기를 촉구합니다.」라고 KWMA에 답신을 보낸바가 있다. 이에 2018. 8.1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에서 보내온 ‘최바울선교사(인터콥선교회) 재심사 청원의 건’에서 「인터콥선교회는 <GMS인터콥조사위원회>의 지적에 대하여 신학문제, 선교지 선교방법, 교회관계 등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개선 노력을 하였습니다. 선교지 선교방법에 대하

여, 대형집회 중단 요구에 따라 즉시 중단하였고,....현장에서 인터콥 장기선교사들이 타 단체 선교사들과 협력하며 관계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등 지적된 문제들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라고 보내왔으며, 103회기 이대위에서는 2019. 6. 7. 최바울선교사를 만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바가 있으나 사실 확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 이대위에서는 모든 공문과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최바울(본명 최한우)선교사의 개선노력에 많은 힘을 기울인 만큼에 비하여 인터콥에 대한 이단 조사관련 현의안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현지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과의 선교방식 방식으로 인한 마찰 보고가 접수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현재의 본 교단 결의를 유지하기로 하다.

결론 : 1. 인터콥 재심의 건은 이전의 결의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2. 인터콥의 총신과 GMS 훈련과정 요청 공문에 대하여는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3. 그 결과 여부에 따라 다음회기에서 다루기로 하다.

4.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

(제103회) (제104회) 총회결의에 의거 2019년 5월 31까지 지적한 내용을 수정하면 총회의 결정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나 소속 교단을 거처 통보하여 기망한 사실과 아직 본 총회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 내용은 기각하고 제102회, 제103회 총회결의를 유지하기로 가결하다.

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제104회기 총회에서 수임 받은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주장하는 정동수 씨에 대한 이단성 연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2019년 10월 24일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정동수 목사 이단성 해지 연기결정”의 내용으로 입장문을 “합동총회, 부총회장, 이단 대책 위원장” 앞으로 보내왔으며, 동연 12월 5일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이대위원장 앞으로 문서를 보내왔고, 2020년 7월 6일자로 본교단 이단대책위원회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왔지만 제104회 총회결의를 유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정동수씨에 대한 재심 요청은 허락하지 않고 제 104회 총회 결의대로 유지하기로 합니다. 이유는 제102회기 이대위는 정동수씨에게 2019년 5월 31일까지 이단에서 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관련 내용을 책자들을 폐기처분하고, 정동수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의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삭제 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2020.7.14.)까지도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 : 정동수씨에 대하여는 본 교단이 요구하는 대로 실행에 옮겨질 때까지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할 것과 정동수는 이단성이 있어 보이므로 참여금지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5. 세이연(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104회) 본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세이연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등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과 철저히 교류를 금지하도록 보고하였으나, 반 삼위일체를 주장하므로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류를 금지하기로 자구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결론 : 104회 결의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6.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104회) 김용의 선교사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 회기에 재론하여 다루기로 하다.

1. 김용의 선교사의 주장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용의 선교사의 주장은 자신의 저작인 다시 복음으로(2015),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2016),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2017) 그리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2019) 등에 잘 나타난다. 특히 복음학교 강의 교재인 자신의 신학사상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는 책에 그의 생각은 잘 정리되어 있다. 김용의 선교사의 복음학교 신앙 훈련프로그램의 일관된 중심 주제는 ‘복음의 실제’이다. 신자들에게 실제화 되지 못한 복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복음의 실재를 회복시키려는 열정이 그를 움직이고 있다. 그는 ‘복음의 실제’를 강조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한다. 그는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는 타락한 인간은 자아 중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에 의존해야 함을 강조한다.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 동반해야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아무도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이러한 복음은 완전하며 오류가 없음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현실에서도 영화로운 삶 즉 복음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의 실제적인 삶은 최종적으로 선교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그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적용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면서 3위 1체 교리에 대한 불분명한 표현을 하고 있다. 예수님을 성령과 동일시하는 표현이 있다.(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p. 741) 그리고 3위1체를 성령중심의 단일신론 오류에 빠뜨릴 수 있는 표현이 있다.

둘째로 김용의 선교사의 가장 위험한 논지의 기본 틀은 ‘유사논리 구조’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의해 가능하지 않는 ‘복음의 실제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극단적 주장을 한다.

셋째로 복음의 완전한 실제화를 주장하므로 완전주의에 빠지게 된다. 김용의 선교사는 교리적으로 ‘완전한 성화론’을 인정하지 않지만 복음이 완전하므로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결과론적으로 ‘완전한 성화론’에 빠지는 위험이 있다.

넷째로 김용의 선교사는 복음의 사실을 받아드리는 일과 복음을 삶속에서 실제화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을 촉구한다. 성령의 절대적인 역사하심과 도움으로 가능하다는 사실과 인간의 결단을 결부시키는 유사논리구조에 빠진다. 물론 믿음생활에서 인간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인간의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절대적인 주체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인간의 결단에 의해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의 실제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인간의 결단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세우면 알미니안주의에 빠지게 된다. 김용의 선교사는 공개 죄 고백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결단을 촉구한다.

다섯째로 김용의 선교사는 복음의 실제화를 주장하면서 기존교회의 신앙과 가르침 그리고 신학교육을 거부한다. 그의 대부분의 강의는 기존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전제로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로 그의 세계관은 역사가운데 실현되어야 할 총체적인 복음의 삶을 완전히 무시한 채 선교적 종말론에 치우쳐 있다.

결론 : 김용의 선교사의 신학사상은 이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주의를 요망합니다. 첫째는 김용의 선교사의 '유사논리 구조'를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논리 구조란 사실과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암시를 결합하면 가상의 논리적구조가 만들어지고 상대는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논리입니다. 둘째로 김용의 선교사의 강의는 완전주의 경향을 주의해야 합니다. 김용의 선교사는 복음의 사실을 받아드리는 일과 복음을 삶속에서 실제화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알미니안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인과 젊은이들이 그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하며 그의 집회와 훈련프로그램에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7. 타교단 구속사 세미나 참여 건

(104회) 본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은 평강제일교회와 담임목사가 진행하는 모든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과 교재사용을 일절 금지하기로 하다.

결론 : 104회 결의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8. 이인규 권사(감리교)

(104회) 이인규 씨는 본 교단 목사에 대한 이단성 공격을 일삼아 오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103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이인규 씨와 같은 입장에 있는 세이연에 대하여, 본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세이연과 그 관련된 모든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등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과 철저히 교류를 금지하기로 하다.

결론 : 104회 결의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9. 방춘희 원장(김포 큰은혜기도원교회)

경기중부노회장 최광염씨가 현의한 김포 큰 은혜기도원 방춘희 원장에 대한 이단성과 사이비 여부 조사 처리건에 대하여

제94회(2009)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그의 신학적 배경을 보면 1977년 개혁신학교 졸업, 경기도 김포 소재 서남노회 서암교회(통합) 한요섭목사에게 1994년 서리집사 직분을 받았음

2000년도 서암교회를 떠나 2002년 김포 큰은혜교회를 개척 전도사로 시무했으며 제94회(2009년) 통합교단에서 조사할 당시는 독립교단 소속이었고 지금은(2020년) 백석교단 서울 강동노회 김포 큰은혜 기도원교회로 소속되어 있다.

큰 은혜 교회(기도원)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기도원 원장: 방춘희

(2) 목사 : 이자훈 2017년 5월 20일 백석교단 서울 강동노회 목사 안수

위임은 하지 않았지만 노회 행정적인 것은 이자훈목사가 교회를 대표.

(3) 시무장로: 최진순, 유만기, 김중돈,

(이상은 2019년 10월 6일 후보 기준)

이미 제94회(2009)년 통합교단에서 방춘희 원장에 대하여 강원동노회가 “김포 큰은혜교회 방춘희



원장 조사 건”(2009.10.1)을 통해 방춘희씨 (김포 큰은혜교회 기도원 원장)의 신학적 배경과 예언 및 신유 집회의 문제점과 방춘희 씨를 영적 어머니라고 칭하는 것에 대한 조사 요청을 통해 타 교단 소속으로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으며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전도사를 초청하는 일에 신중을 가하고 사역에 미신적인 형태로 전락할 소지가 많으므로 초청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음 (참조) 방춘희 씨의 ‘예언 신유 집회’에 관한 연구보고서

(http://theologia.kr/borad_idan/25418)

그 후 방춘희 원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본 교단의 교회의 피해를 증점으로 조사하니

1. 치유 기도와 예언 기도를 통하여 영적 길들이기로 가정의 갈등이 발생하고 특히 신유 치유 기도시 가족력을 강조하며 마귀가 공격을 해서 병이 커진다 함
2. 예언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방춘원 원장에게 맹신하게 하고.
3. 강도권의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자훈목사가 있음에도 주일예배를 방춘희원장이 매주 설교하고 이자훈목사는 축도만 함

4. 기존교회에서 성도들을 이탈하게 한다.

본 교단의 모 교회가 심각한 피해를 입음 특히 큰은혜교회만 올바른 교회이다라는 프레임을 가지므로 청년들이 기존교회에서 이탈하게 한다.

결론 : 비 성경적인 신앙 행위와 올바르지 못한 교회론의 행위를 통해 볼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올바른 교회들을 혼란케하는 요소가 분명한 고로 본 교단에서는 방춘희씨와 김포 큰은혜기도원 교회를 사이비성 신앙단체로 규정하여 본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의 출입을 금지 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반시 교단 및 교회법에 위거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기로 하다.

10. 전광훈 목사(한기총)

8개 교단 이단대책협의회는 2019년 12월 19일 공개 질의서를 통해 전광훈 씨의 당해 10월 22일 발언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던 말이야. 친해”에 대한 의도와 의미를 물었다. 이에 전 씨는 올해 1월 30일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당시 성령이 충만했다"는 핑계를 대 다시 한번 빈축을 샀다.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도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 그는 2월 4일 광주사랑의교회 초청 강연에서 “내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때(34살 때)는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말이야”라며 해당 발언을 농담의 소재로 삼았다.

이를 근거로 8개 교단 이단대책협의회는 2020년 2월 13일 발표문을 통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과 그 발언의 동기가 성령 충만으로 인한 것이란 말은 반성경적이며, 비신앙적이며, 비신학적"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발표문에서 전광훈 씨는 일련의 비성경적 발언 중단을 요구하고, 전 씨의 발언들이 한국 교회에 혼란과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신뢰도와 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기술했으며 아울러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전 씨로부터 신앙적으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협의회는 또한 전광훈 씨를 ‘이단 옹호자’로 결의할 것을 각 교단에 요청하기로 합의하고 공문을 발송했다. 전광훈 씨가 각 교단이 이단에서 해제한 적이 없는 변승우 씨를 일방적으로 풀어주고 공동회장으로 받아들인 것을 이단 옹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기총(대표 회장 전광훈)은 2019년 3월 이단 변승우를 이단에서 해제하여 주고 그가 담임하는

교회를 한기총에 가입시켜 주었다.

변승우 씨는 한국 교회 각 교단으로부터 이단(예장통합,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이단성(예장합신), 교류·참여 금지(기성, 예장고신), 집회 참석 금지(예장합동), 예의 주시(기감) 등의 결의를 받아왔다. 구원론의 문제, 극단적 신비주의, 성경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도격 인물이 현대에도 존재하며 그가 자신이라는 신사도주의, 어그러진 계시관·성경관·교회관 등이 이유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져 현재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공식 결의들이다.

심지어 한기총은 이전에도 이광선 목사가 대표 회장이었을 때부터 이단들을 한기총에 가입시켰다. 장재형에 대해 이단 해제를 하고, 다락방과 평강제일교회, 인터콥 등 주요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판정한 자들과,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신현옥(시온세계선교교회) 등을 한기총에 가입시켰고 이로 인해 많은 교단들이 한기총을 떠났으며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회)이다.

전광훈 씨를 비롯하여 한기총이 이단들에 대한 이단 해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정통 기독교 교단들은 이들을 이단 옹호 인물, 이단 옹호 기관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솔한 이단 해제로 많은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전광훈 씨는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발언하기도 했으며 성경은 모세5경만이 성경이고 나머지는 그 해설서라고도 하는 등 성령론과 성경관의 이단성을 보이기도 했다.

결론 : 전광훈목사의 말과 신학에 이단성이 있고 이단 옹호자이므로 예의주시할 뿐 아니라 엄중 경고하여 재발을 방지키로 하고, 전광훈목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 교류 및 참여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다. 한기총 또한 이단옹호기관으로서 교류 및 참여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다.

11. 박바울 목사(호헌 측)

결론 : 한 회기 더 연구기로 하다.

12. 산위의 교회(서울동노회)

결론 : 서울동노회 재판국의 산위의교회 관련 재판 결과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13. '목회자 진리 수호' 편집인 김문제, 발행인 박형택 씨의 이단옹호의 건

결론 : 한 회기 더 연구기로 하다.

14. 동수원노회 송명덕 목사 이단 사상 조사의 건

결론 :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하다.



청 원 서

수신 : 총 회 장

참조 : 서 기

제목 : 인터콥의 지도부 및 선교사 총신 교육 및 총회세계선교회(GMS)훈련 요청에 대한 청원의 건

인터콥은 지난 2020년 8월 2일(화) 보내온 공문을 통하여 인터콥 지도부 및 선교사 총신교육 및 총회세계선교회(GMS)선교 훈련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총회의 결정을 청원합니다.

2020년 9월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이 역 희

서 기 성 경 선